

# 스티븐 D. 매튜슨 박사, 구약 내러티브 설교, 제1강, 구약 내러티브 설교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내러티브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내러티브 설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내러티브 문학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스티브 매튜슨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제가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약 39년 동안 목사로 사역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저는 설교 목사입니다. 매주 일요일이 아니라 매주 설교를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교할 기회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설교는 제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 신학교와 성경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에서 구약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몬태나주로 이주하여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밟을 기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해든 로빈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 서사 문학 설교 기법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을 책으로 출간할 수 있었고, 현재 2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의 기술』(The Art of Preaching Old Testament Narrative), 베이커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2021년에 출간되었고, 초판은 2003년에 나왔습니다.

설교 교재에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분이라면 이 표지를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초기 표지였는데,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강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최신판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꼭 최신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제가 구약 성경 서사 문학을 설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회자들과 구약 성경 서사 설교에 관심 있는 분들께도 이 책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예전에 해든 로빈슨 박사님께 "구약 성경 서사 설교에 관한 책을 쓰시는 건 어떠세요? 박사님의 성경 설교에 관한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사님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주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저에게 고통스러운 형태의 지속적인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는 와중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스텔렌보스 대학교에서 히브리어 성경 박사 과정에 진학했고, 지도교수님이셨던 크리스토 반더미어 교수님께서서는 제가 구약 성경 서사 문학 연구에 언어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밑에서 박사 과정을 밟을 기회를 얻었고, 이 두 번째 판을 작업하는 동안에도 박사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계와 연구 분야 모두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모교인 웨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사실, 저는 그곳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약 6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덴버 신학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무디 신학교와 포틀랜드에 있는 웨스턴 신학교에서 설교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삶의 다른 한쪽은 목회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 문학을 설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커피숍, 스타벅스든 뭐든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대화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커피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어폰을 꽂고 있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당신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 K. A. 스미스는 우리의 마음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고 말했죠. 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는 정말 우리를 길러주잖아요? 이야기는 생각을 심어주고, 감정을 우리 뇌리에 심어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화든, 케이블 뉴스든, 소셜 미디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를 보면, 방송인들은 항상 중요한 경기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우리에게 큰 이점도 제공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에 따르면, 구약 성경 전체의 30~40%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룯, 삼손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활용하면, 이야기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이야기에 이끌리는 교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故) RC 스프로울 신학자가 했던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통해 설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상적인 교훈보다 이야기에 열 배는 더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에 있어서 우리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소홀히 다룹니다. 마치 색소폰이나 트럼펫을 처음 배우는 초보자처럼 말이죠.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는 모습을 들어보면, 얼마나 서툴고 어색한지 아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설교할 때도 그런 식입니다. 설교는 하지만, 초보자처럼 서툴게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야기 전달 방식을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 시리즈는 구약 이야기 문학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좋은 출발점은 우리가 구약 이야기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교하는데, 사무엘상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정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저조한 성과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교회나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신약 서신서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저는 신약 서신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대개 제가 그 순간 설교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책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신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자라온 교회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많은 교회들에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베드로의 서신도 조금 다루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하 예배당이나 기독교 교육관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반면, 위층 어른들은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슬리 코드(Wesley Cord)는 우리가 왜 이야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지 설명하는데,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선택 사항, 즉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취향의 문제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야기라는 담론을 어른보다는 아이들에게, 혹은 교육받고 세련된 사람들보다는 고대인이나 미개발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것으로 여기며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했던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몬태나에서 약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대학가와 시골 지역 모두에서 사역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카우보이부터 대학교수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카고 북부 교외 지역으로 이사했는데, 그곳에는 화학 엔지니어들과 과학 박사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교회는 주요 제약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 모두에게서 발견한 것은, 그들은 사실을 원하고, 요점 정리된 목록을 원하고, 논리적으로 잘 짜여진 것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경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여러 성경 교사와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NT 라이트는 이야기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가 종종 사람들이 실재를 대신하는 것으로 잘못 여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어떤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 이야기에는 강력한 지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구약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몬태나에 살았을 때 고(故) 유진 피터슨을 알게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분도 몬태나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런 이야기를 경시하는 목사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이야기는 종종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치부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진지한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대답은 무지라고 합니다. 대부분 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언어가 담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이자 가장 진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청중과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살아있게 할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대부분이 이야기나 서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이들을 위한 가벼운 오락거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의 미묘함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사적인 글을 많이 읽어봤다면, 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훨씬 더 미묘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서사는 보통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줍니다. 때로는 서사가 마치 점 잇기 그림 같아서, 점들을 연결해야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은 글이 요점을 직접적으로 밝히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더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글이 항상 이해하기 쉽다는 건 아니지만요.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자신의 글 중 일부는 어렵지만 적어도 명확하게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 문장도 있습니다 . 에베소서 1장 3-14절은 200단어가 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상황을 꽤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제 멘토이자 성경 설교의 거장 중 한 분인 해든 로빈슨 목사님은 왜 하나님은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질문하십니다. 저희도 자주 받는 질문이죠. 바로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너무나 미묘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미묘한 차이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더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세 번째 이유는 정경에서 구약 이야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경 해설자들이 신약 진리를 설명하는 예시로서만 구약과 그 이야기들을 참고했습니다.

설교 교재에서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거기에는 이야기(내러티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리를 배우려면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를 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신약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듀홀이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은 신약 신학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많은 구약의 가르침이나 신약에서 반복되지 않는 가르침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 창조 율법과 언약은 구약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단순히 예시로만 사용한다면 성경적 불균형이라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적절한 신학적 틀은 구약 전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인용하는데, 이 구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그렇고, 여기에는 구약도 포함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구약 학자인 이언 프로반도 이에 동의하며 모든 역사 서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들이네요. 모든 역사 서술, 그러니까 모든 역사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데올로기적 문학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적인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 자랐는데, 그곳의 영웅 중 한 명이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저는 링컨에 관한 책, 특히 전기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 하나는 도리스 컨스 굿윈의 『라이벌들의 팀』입니다. 링컨이 어떻게 정적들을 규합하여 내각에 참여시켰는지에 대한 훌륭한 책입니다.

하나는 단순히 그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제가 읽은 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인 '링컨의 검'을 읽었는데, 그 책은 링컨이 연설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책 모두 역사서입니다.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이념적인 면도 있습니다. 도리스 컨스 굿윈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생애에서 특정 사실들을 발췌하여, 그가 적합한 지도자들을 주변에 모으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정치적 라이벌을 포함하여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링컨의 검』의 저자는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루었지만, 다른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부 사실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요점은 두 사람 모두 역사를 왜곡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A부터 Z까지 모든 사실을 자신들의 승인을 받아볼 수 있고, 그중에서 B, C, F, G, L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적 세부 사항들이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부분 중 일부가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선지서 모임집에 속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전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포함됩니다.

그 네 권의 책 말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 네 권은 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즉, 그들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최근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인 앤디 스탠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를 가르칠 때 구약의 모든 것에서 분리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구약이란 구약 성경을 의미하며, 그의 이야기들도 포함됩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나 옛 언약의 서사와 세계관에 얽매 있다면, 과학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현실 세계, 즉 시장에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제기한 우려에 공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브렌트 스트론 같은 학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언어를 함께 배우고, 두 성경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구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정경에서 구약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언어와 문학에 위축되지 않나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신약 성경의 언어와 문학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죠. 그런데 저는 신약 성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히브리어 공부만큼이나 그리스어 공부도 좋아합니다. 예전에 신약학 교수님께 여쭙본 적이 있는데, 왜 신약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죠.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어를 배우는 게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보다 쉬웠어. 구약은 광범위한 역사를 알아야 하지만, 신약은 알아야 할 역사적 부분이 더 적다고 느꼈거든."

저도 그 점은 이해합니다. 신약성서를 구약성서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미국 시민이 서양 문명사나 세계사보다는 미국사만 전공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의 방대한 분량과 길이, 그리고 히브리어 학습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히브리어는 일단 배우기 시작하면 정말 재미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특정한 강해 설교 방식에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설교 방법에 얽매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서신서를 자주 설교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맞이고 어느 쪽이 수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약 서신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매우 분석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신약 서신서를 설교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 서신서는 논리가 매우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분석하기에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서신서를 다룰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려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 돈 워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들이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마치 변호사의 변론서처럼 분석하고 재구성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설교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한 논리적 추론에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점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주의 설교자들, 그리고 저도 그런 전통 속에서 자랐는데, 그들은 이런 설교 개요 작성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교를 분석하는 개요에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청중들이 필기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 부분을 주제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그 녹음본은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전체를 설교했는데, 사무엘상 7장에 사용했던 개요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요를 활용하여 이야기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였습니다. 설교에서 저는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된 번영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하위 요점은, 다시 말해, 세부 요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를 통해, 저는 주님을 찾기로 결심했고, 우상을 버리기로 했으며, 죄를 고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D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골랐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determination(결단), decree(칙령), decision(결정) 이렇게 해서 두운을 맞췄죠. 게다가 저는 이 단어들을 병렬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찾으려는 결단, 우상을 버리려는 칙령, 혼란을 일으키려는 결정처럼요.

아름답죠, 안 그래요? 하지만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스토리라는 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다룰 때 그런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걸 배워야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설교의 비법은 꽤 간단하지 않나요? 본문을 분석적인 개요로 나누고, 각 요점에 병렬 구조를 넣어 양념을 치고, 두운을 적절히 섞어서 30분에서 35분 정도 설교를 준비한 다음,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빈 개요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이런 방식이 유행이었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서부의 한 유명 복음주의 교회의 웹사이트를 살펴봤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교단 내 지도자인 분이 설교 원고와 음성 파일을 제공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을 폄하하거나 비웃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우리가 익숙한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의 개요 몇 개를 클릭해 봤는데, 그중 하나가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첫 번째 요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폄훼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영어를 쓰는 분들이라면, '폄훼'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아니면 글이나 영화에서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깨달았죠, 아, 그에게는 '복수'라는 단어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수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로빈슨 대학에서 들었던 수업에서 비슷한 표현을 썼던 반 친구가 생각나네요.

개요 작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스토리텔러는 분석적인 개요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개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지만,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요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 뼈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제 뼈대를

불 필요는 없잖아요? 개요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지만,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우리는 설교의 해석학적, 주해학적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설교학적 측면도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석학적, 주해학적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텍스트를 연구할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사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 즉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알게 되면, 그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설교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설교를 구성할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이야기 본문을 바탕으로 강해 설교를 구성하는 과정은 유연하고 예술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해 설교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 다양한 접근법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과 책들을 덩어리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이 과정 모두 유연하고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배우려면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오래전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딸 때, 운전 교본에는 좌회전하는 방법이 최소 10단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12살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는 제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10단계라고요? 그럼 좌회전할 때마다 10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사고 날 것 같네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나중에 깨달은 건, 과정을 세분화하니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익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는 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다소 기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을 유동적인 예술적 움직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 서사 텍스트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꼼꼼히 읽고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히브리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읽기 쉬운 문학 형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사입니다. 사실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서사처럼 전개됩니다.

비록 그리스어로 쓰여 있지만, 성경 이야기는 원어로 읽기에 가장 쉬운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거나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면, 제가 거의 확실하게 장담하는데, 가장 먼저 접하게 될 책 중 하나가 요나서일 겁니다. 제가 처음 히브리어를 배울 때 요나서를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나서는 짧은 책이지만, 이야기 형식은 이사야어나 시편의 시적인 구절들보다 훨씬 읽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교 방법이나 구약 성경 이야기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 중심 설교에 대한 논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이며,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